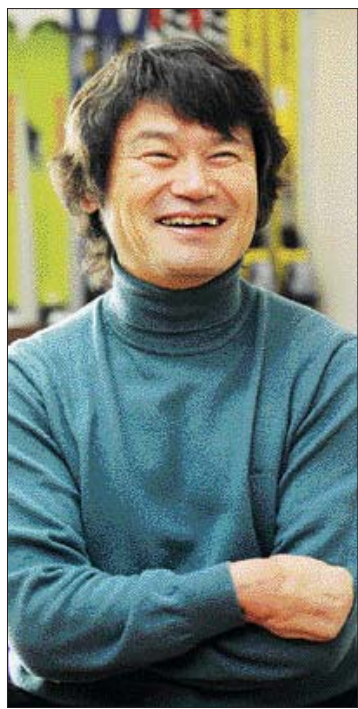


'7대륙 최고봉 등정' 김흥빈 대장 장애인 등과 칼라파타르 오른다



'2010 호랑이 해맞이 히말라야 희망원정대' 발대

"기록 수립이 아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떠나는 히말라야 원정입니다. 칼라파타르 정상에서 장애인, 소외 계층 청소년들과 함께 경인년 첫 해를 보며 희망을 노래하고 오겠습니다."

열 손가락이 없는 장애인으로서 사상 첫 7대륙 최고봉 등정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김흥빈(46) 대장이 호랑이의 해를 맞아 가정환경이 어려운 범띠 초등학생, 장애인 등과 히말라야 원정에 오른다. 어려운 가정 환경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고, 자신처럼 몸이 불편한 이웃과 함께 새해 각오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지구촌새마을재단 등이 마련한

'2010 호랑이 해맞이 히말라야 희망원정대'에는 김 대장과 범띠(1998

을 광주산악연맹 산악구조대장이 기차승 등 봉사대원 등 9명도 함께 원정에 오른다.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히말라야 희망원정대'는 올해로 세번째, 김 대

소외계층과 함께 경인년 희망 노래

히말라야 오지학교에 문구 전달도

년생) 초등학생 배성은(경남 산청 초 5년)·양·이도건(〃)·군, 뇌병변 장애 1급 이지영(여·48·서울시)·서순용(49)씨 부부, 지적장애(3급)를 지닌 경철수(17·대구시)군 등이 대원으로 참여한다. 또 이들의 원정을 도

장은 지난해 참여를 제외받았으나 지난 1월 남극 빈슨메시프(4,897m) 등정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다. 이번 원정은 미뤄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동행이다. 이들은 오는 21일 네팔 현지로 출



지난 13일 경남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에서 열린 '2010 호랑이 해맞이 히말라야 희망원정대' 발대식에서 김흥빈 대장(앞줄 가운데)과 장애인 대원들이 '희한 도전'을 다짐하고 있다. <김흥빈 대장 제공>

국, 내년 1월1일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가 있는 해발 5,545m 칼라파타르 정상에 올라 경인년 첫날을 맞이한다. 원정대는 칼라파타르 등정에 앞서 히말라야 오지 학교에 들러 스케치북과 노트, 볼펜을 비롯한 문구 용품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20일에 이르는 원정기간 동안 히말라야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틈틈이 봉사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원정대는 히말라야 원정을 위해 이달 초와 중순 경남 산청군 차령면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에서 두 차례

에 걸쳐 현지적응훈련과 함께 희망원정대 발대식을 열었다. 원정대는 다음달 9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김 대장은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8000m급 봉우리가 아닌 만큼 원정에 있어 특별한 위험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나보다 더 몸이 불편한 이들과 함께 가지만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오게 될지,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지 잘 모르겠다"며 자신을 낮췄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원침 (7983) 김종두



광양 한려대학

일반대학 전환

광양 한려대학이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됐다.

18일 한려대학에 따르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일반대학으로 개편에 대해 최종 인가를 받았다. 한려대는 교사와 교원, 교지, 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통과, 일반대로 전환을 승인받았으며 일반대학원 박사과 석사과정도 함께 신설됐다.

지난 1995년 산업대학으로 개교한 한려대학은 그동안 산업체 인력양성 및 산업체 근로자와 만학도의 재교육 등에 힘을 쏟아왔으며, 지난해부터 일반대 전환을 준비해왔다.

한려대는 이번 일반대 전환을 계기로 광양만권에 필요한 고급약사와 약과학자 등의 인력 양성을 위해 약학대학 설립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순천서도 돼지 신종플루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순천의 양돈농장 1곳에서 신종 인플루엔자(A(H1N1·신종플루)에 감염된 돼지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람에게 이어 돼지에서 신종플루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 농장의 돼지 사육 규모는 400여 마리다. 이에 따라 14일 돼지의 신종플루 감염 사례가 국내 처음으로 발견된 이래 신종플루 감염 농장이 모두 15곳으로 늘었다.

지난 16일에는 장성군 북일면 S종돈장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돼지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추가로 감염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서도 기존의 가축방역협의회 결정에 따라 3주간 돼지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쓰레기 던졌다 DNA 수사에 달리

○아파트 배란다 밖으로 쓰레기를 던졌다가 남의 차 유리를 부순 10대가 DNA 수사를 통해 경찰에 검거.

○대구 중부경찰서는 18일 안모(16·무직)군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

○안군은 지난 2월8일 오전 10시경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닭고기를 먹고 난 뒤 닭뼈와 닭배공초 등이 든 쓰레기봉투를 배란다 밖으로 투척, 주차대 있던 승용차의 뒷유리를 깬 혐의.

○안군은 최근 절도사건으로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라 받게 된 DNA 검사 결과가 쓰레기 속 닭배공초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면서 달미가 잡혔다고.

/연합뉴스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 큰 성과

광주시교육청, 올 853명 중 79% 674명 구제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추진한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제가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진단평가 후 기초학력이 떨어진 학생 853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지도제를 시행, 79%인 674명이 구제됐다.

책임지도제는 해당 학교 교감을 책임임원으로, 담임이 책임자가 돼 읽고, 쓰고, 셈하기(3Rs)가 부족한 학생을

진담해 가르치는 방식이다.

지난 6월 확인평가 결과 대상 학생 절반이 문제를 해결했으며 9월 평가에서는 79%가, 이달 평가에서는 85%인 725명을 구제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부진학생 진단 교사 중 104명으로 컨설팅 팀을 구성해 해당 학교 등을 서로 방문해 효율적인 지도방법, 정보 등을 교환했다.

특히 1천70여명에 달하는 부진학

생 지도용 학습자료를 개발, 내부 게시판 등에 탑재해 수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학습지도 기법이 풍부한 퇴직교원을 방과 후 강사로 초빙해 부진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는 등 기초학력 부진학생 제로화를 추진했다. 시 교육청은 부진학생 지도 우수 교원에게는 인사고과 반영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표창을 수여하는 등 지도의욕을 높였다.

최윤길 광주시교육청 장학진흥과장은 "광주교육의 목표는 한 명의 교육 낙오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사에게는 책임의식을 주고 학생에게는 믿음과 신뢰를 줘 부진학생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포즈클럽과 영어 동아리 활동 등을 활발히 펴온 용봉중이 최우수 학교에 선정됐다.

또 진로 지도와 국제교류 프로그램, 산학협약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전남공고가 최우수 학교로 뽑혔다.

일동초 등 최우수학교 3곳은 교과부장관 표창, 미산초 등 우수학교 9곳은 시 교육감 표창 등을 받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송의고 전소현, 광주 전문계고 첫 서울대 합격

불우 가정환경서 일군 '작은 기적'

학교·학생들 등록금 마련 모금운동

광주지역 전문계고에서 최초로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해 화제다. 주인공은 광주 송의고 전소현양.

<사진>

2010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아동학부에 합격한 전양의 꿈은 소외계층 아이들을 돕는 '아동복지정책가'가 되는 것이다.

전양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라면서 "아동 복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서울대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양은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



구하고 고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성실함으로 자신의 꿈을 이뤄냈다.

광주지역 13개 전문계고 출신 중 서울대에 합격한 것은 전양이 유일하다는 게 광주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전양의 담임인 과인선(49)교사는 "소현이는 점심 시간에 책을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로 학구열

이 강한 학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양에게도 어려움은 있었다. 10여년전 홀로 된 어머니(43)와 중·고생인 두 남동생과 단칸방에서 셋방살이를 하는 어려운 형편에서 500여만원에 이르는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의 마련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어머니까지 감상선 저하증 등 질병으로 수년째 일손을 놓고 있다. 유일한 수입은 구청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전부다.

한편 송의고는 학교와 학생들이 나서 전양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 전개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폭설에 도로 꽁꽁 교통사고 속출 풍랑에 어선 전복 어민 3명 사망

영광 14중 추돌·무안선 탱크로리 전복

강추위를 동반한 많은 양의 눈이 연일 이어졌으나 제설작업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등 출·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어민들이 숨지는 등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대설특보 속 교통사고 잇따라=영광에 대설 경보가 발령되는 등 전남지역 11개 시군에 대설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18일 오후 5시 현재 영광 19.3cm, 무안(해제) 15cm, 목포 12.9cm, 광주 1.5cm의 적설량을 기록하는 등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교통사고가 속출했다.

18일 오후 3시50분께 영광군 불갑면 안평리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영광 1터널 출구 부근에서 차량 1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20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경찰은

눈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상행선을 통제하고 합류 방면으로 우회조치하고 있다.

이날 새벽 6시55분께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무안군 몽탄면 부근에서 액화탄화수소를 싣고 가던 25t 탱크로리가 전복돼 운전자 구모(58)씨가 부상을 입었다. 또 전날 오후 7시40분께 여수시 울촌면 신동리 한 도로를 건너던 오모(여·70)씨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조사결과 운전자(53)는 시야를 가린 눈 때문에 길을 건너던 오씨를 미처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풍랑주의보 속 어선 전복 어민 사망=18일 오전 7시 30분께 신안군 압해면 외안도 인근 해상에서 김모(56)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해경이 발견했다. 해경은 또 다른 김모(64)씨와 박모

(여·63)씨 부부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 부부 등은 전날 오전 9시께 신안군 압해면 광림 선착장에서 0.2t 규모의 어선을 타고 김을 채취하려 나간 뒤 이날 오후 3시께 채취한 김을 위관하고 귀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새벽 2시10분께 목포시 대만동 방파제 앞 해상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으나 곧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바다에서 누군가 허우적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가 출동해 무사히 구조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다"며 "현재 변사자의 신원을 증명할 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해경은 지문감식 등을 통해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무안=김민준기자 jun@

자율화 우수학교 12개교 선정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은 18일 자율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일동초 등 12개 학교를 자율화 우수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 4곳, 고등학교 3곳, 특수학교 1곳 등이다.

일동초는 활동과 체험 중심의 축제화된 교육과정을 운영,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중학교에선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 학생중심의 학교스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6분 해질 17시 23분 달돋이 09시 31분 달질 19시 50분

안전운전 하세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며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겠다.

지역	기온
광주	흐리고 눈 -6/1℃
목포	흐리고 눈 -3/2℃
여수	맑음 -4/3℃
완도	흐리고 눈 -2/2℃
구례	흐리고 눈 -7/1℃
해남	흐리고 눈 -3/2℃
장흥	흐리고 눈 -3/2℃
고흥	구름 많음 -5/3℃
순천	맑음 -5/3℃
영양	흐리고 눈 -6/1℃
진도	흐리고 눈 -2/2℃
전주	흐리고 눈 -7/1℃
남원	흐리고 눈 -11/-1℃
축산도	흐리고 눈 0/3℃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관심	낮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목포 03:12 16:06	08:41 21:25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여수 10:48 22:38	04:06 16:52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0(일)	21(월)	22(화)	23(수)	24(목)	25(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4/3	-3/5	-2/8	-1/10	1/11	4/7

비상구에 물건 적치 신고자 5만원 포상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은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지침'을 각 시·도로 내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나 훼손 행위,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등을 신고하면 현장 점검과 포상 심의 과정을 거쳐 불법행위가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방법은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포상금은 전문적인 신고공을 막기 위해 한 사람당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시행 시기는 시·도별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